

“빚 감당 안돼”... 개인파산 신청 속출

최근 4년 480건→565건→582건→717건으로 증가세 개인회생 신청도 급증... 지법 “신청사례 면밀 검토” 법무사 “작년 9월 이후 생활고 따른 빚 상당 폭증해”

#지인에게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빌려준 B(36)씨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통지서’를 받았다. 빚을 감당하지 못한 지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빚은 B씨 말고도 10여명(금융기관 포함)이나 더 있었고, 금액도 2억원에 달했다.

B씨는 “지인은 흠뻑으로 자네를 키우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

려줬다. 최근 일하던 업소가 망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줄은 몰랐다”면서 “2025년까지 빌려준 돈 일부를 갚겠다는 변제계획까지 제출한 것을 감안, 한 번 더 지인을 믿어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48·여)씨는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수 차례 받았던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파산면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식당을 살리려다 감당할 수 없는 빚만 졌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빨리 식당을 포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제주에서 파산과 개인회생 신청이 속출하고 있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017년 480건, 2018년 565건, 2019년 582건, 지난해 717건(잠정)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 신청도 2017년

843건, 2018년 987건, 2019년 1189건, 지난해 1177건으로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도내 한 법무사는 “작년 9월 이후로 파산이나 개인회생 상담이 늘었다. 사업이 아닌 단순 생활고로 인해 빚을 진 경우가 늘어난 것이 종전과는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관계자는 “과거에는 실적을 쌓기 위해 파산 등 민사사건을 경쟁적으로 빨리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많았다”며 “현재는 다소 시간이 더더러도 신청인의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이석문 2기’ 두 번째 조직개편 움직임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 교육계 개편 규모에 관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2기 출범 후 두 번째 조직개편 추진 움직임 속 개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한시기구인 교육자치추진단과 학생건강증진추진단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이에따른 사무·인력 재구조화와 기구 개편 등이 검토중이다.

일단 오는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교육자치추진단은 내달 중순까지 사무·인력 재구조화 검토 후 관련 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7월 1일자로 폐지될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학생건강증

진추진단은 연장 또는 정규기구화 등을 놓고 기구 개편이 검토중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맞물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내부 TF 구성 등을 통해 전반적인 조직개편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 교육감 2기 재임 중 지난 2019년 2월 첫 조직개편 시행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 추진인만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소규모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등에서 교육청 내외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무능력 강화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 대응, 교육패러다임 변화를 적용한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같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봄나들이 나온 아이들 23일 제주시 도두봉 공원에 봄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이 벚꽃 아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사라진 자유게시판...

교사모임 “불통 교육청 도민과 담 쌓는가” 지적

제주중등현장교사모임이 제주도교육청의 ‘불통’ 교육행정을 지적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소통의 장이었던 ‘자유게시판’이 사라진데 따른 것이다.

교사모임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도민이 교육현안에 대해 자유 의견 개진, 정책

담당자의 답변이 공개돼 있는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 없다”면서 “몇 년 전에는 있었는데 사라졌다. 교원과 도민들이 익명으로 또는 실명으로 도교육청 정책, 문제점 개선 등 참여할 공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현직 교사들이 심수년 동안 학교 현장 문제 질의 등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많은 교육 문제 해결을 해왔던 곳”이라면서 “정책 담당자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이 사라진 것은 이석문 교육감과 도교육청이 도민과 담을 쌓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은지기자

■ 국토부, 코로나 시국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대유행 때마다 버스 이용 곤두박질

대중교통 이용량 21%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3일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주지역 시내버스 이용량은 4346만 9000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5486만4000건과 비교해 20.8% 줄어든 수치다. 전국 평균은 26%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 시내버스 이용량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 436만 4000건 ▷2월 334만9000건 ▷3월 294만1000건 ▷4월 306만9000건 ▷5월 349만건 ▷6월 376만5000건 ▷7월 415만6000건 ▷8월 382만2000건 ▷9월 340만8000건 ▷10월 390만6000건 ▷11월 404만3000건 ▷12

월 315만5000건 등이다. 코로나19 여파가 미치지 전인 지난해 1월 제주지역 시내버스 이용량은 436만여건에 달했으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3월에는 감염 우려에 따라 이용량이 294만여건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 여름 휴가철인 7월에는 415만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내버스 이용량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3차 대유행이 시작된 12월에는 315만여건을 기록했다.

한편 전국시도별 시내버스 이용량 증감률은 광주가 32.3%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28.7%), 경기(28.0%), 인천(27.1%), 울산(26.8%), 대구(26.3%), 서울(25.0%), 부산(24.3%), 제주(20.8%), 세종(17.5%) 순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건강검진 서두르세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코로나19로 연장된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계가 신속한 수검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의 검진 가능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라

6개월 검진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검진기관 내원이 망설여질 수 있지만 6월에 가까워질수록 수검자 풀림으로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며 “만성질환자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안전한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제주·독도 해역서 미기록 해양동물 발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총 8종 학계에 보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독도와 제주도 해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해면동물 6종과 국내에서 처음 발견한 절지동물 2종 등 해양 동물 8종을 새로 찾아 국내 학계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생물자원관 연구팀이 새롭게 발견한 해면동물 6종은 망각해면목에 속하는 동물들로, 흰색

디시디해면, 독도디시디해면, 히드라디시디해면 등으로 이름을 붙였다.

연구팀은 절지동물의 일종인 히페리아 단각류 2종이 독도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 확인했다. 히페리아 단각류는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발견하고 보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한 8종을 한국동물분류학회지(ASED)에 보고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늘 고객의 행복한 삶과 환경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제주도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기업-
(주)웅진건설은 섬없는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株) 雄 診 建 設
토목·토공·철근콘크리트·상하수도·수중·석공

代表理事 宋承天

제주시 청사로 73번지(5층) / TEL.759-0382~4, FAX.759-0385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

제주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웅진건설